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6-7700



(양현종)

## KIA 승... 승... 질주 계속된다

(김상현)



**이번주 홈서 롯데전 이어 달구벌서 사자사냥  
투·타 안정... 팀 최다 12연승 기록 돌파 관심**

김원섭의 짜릿한 역전 끝내기 만루 홈런으로 군산을 뜨겁게 달구었던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9연승 중인 KIA는 안정된 마운드와 한방이 더해진 타선을 앞세워 연승기록에 도전한다. 팀의 최다 기록은 해설이절인 88년과 94년 달성된 12연승이다.

KIA는 관중 몰이에도 도전한다. 지난 8·9일 SK와의 군산경기에 만일 관중이 들어서면서 홈 4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세운 KIA는 시즌 15번째 매진 사례를 장식했다.

잠실과 군산을 돌아 5승을 챙겨 들고 온 KIA는 11일부터 롯데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1위 KIA와 4위 롯데, 두 전국구 구단의 대결만큼 연승과 연속 매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대결의 승패는 좌완 에이스 양현종에게 달려있다. 올스타전 이후 11경기에서 10승1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의 1패는 양현종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상대팀이 바로 롯데다.

양현종은 올스타전 이후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29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3과 3분의 2이닝동안 4실점을 하며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마음고생을 했던 양현종은 4일 LG와의 경기에서는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시즌 7승을 신고했다.

LG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롯데와의 전적은 1승2패, 시즌 평균자책점이 3.29지만 롯데전은 6.75까지 치솟는다. 거기에 10연승을 앞둔 상황에서 난적 롯데와 만나야 하는 만큼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다. 타선에서는 김상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KIA는 0.264의 타율로 변함없이 팀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주 5경기에서 47득점을 기록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5경기에서 홈런은 14개가 터졌다.

김상현은 지난주 삼성과의 대결에서 11타수 7안타(2홈런)를 기록하며 팀 1위 등극에 수훈감이 쫓겨 이어 최근 5경기에서 22타수

10안타(타율0.455) 4홈런 8타점의 신기에 가까운 방망이쇼로 연승행진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현은 주말 대구로 원정을 가 '천적' 삼성을 만나게 된다. 올 시즌 삼성전에서 0.432의 타율을 보이고 있는 김상현은 전체 86타점 중 16점을 삼성 마운드로부터 뺏았다.

이대진의 100승 달성 여부도 관심사다. 이대진은 지난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38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통산 99승째를 기록했다. 100승에 남은 승수는 이제 하나. 이번주 이대진의 선발이 예정되어 있지만 비가 등관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주 피말리는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롯데와 삼성과의 6연전을 치르게 된 KIA 타이거즈, 호랑이의 움직임에 따라 4위 팀의 운명도 뒤바뀌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승
1	KIA	57	37	4	0.582	9승
2	두산	55	41	2	0.561	1패
3	SK	55	42	5	0.539	3패
4	롯데	53	50	0	0.515	1패
5	삼성	51	50	0	0.506	1승
6	히어로즈	46	50	1	0.474	3승
7	LG	43	56	3	0.422	1승
8	한화	31	65	3	0.313	6패

## 송민영 "아마 골프 내가 여제"

지난 6월 퍼블릭링크스 이어  
US 아마추어선수권도 석권

골프 유학생 송민영(20·사진)이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에서 1인자의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 송민영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울드위스 골프장(파71·6천422야드)에서 열린 제109회 US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36홀 매치플레이 결승에서 제니퍼 존슨(미국)에 3홀차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 6월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한 송민영은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최하는 양대 아마추어 대회를 한 시즌에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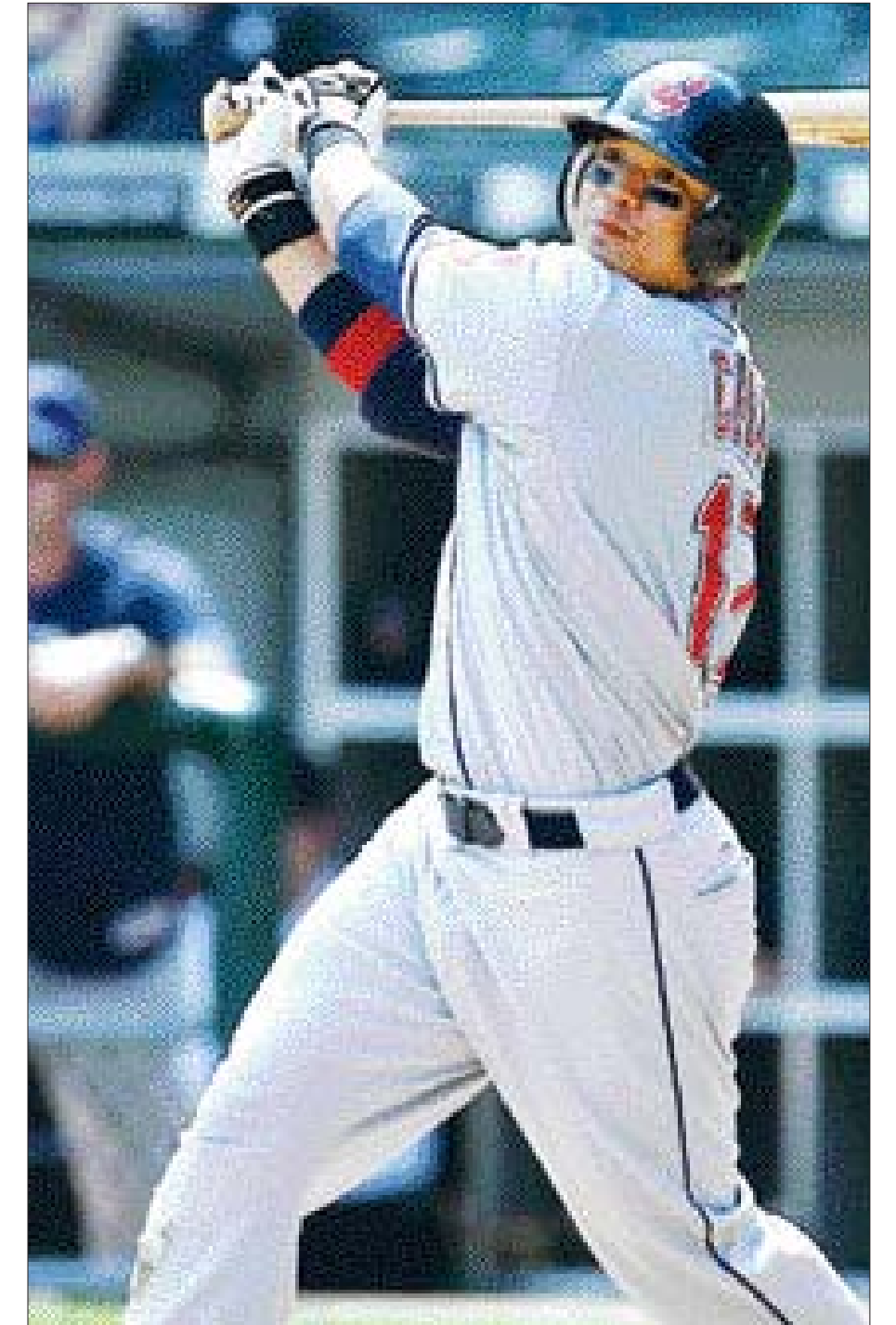
이전까지 한 시즌에 이 두개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선수는 재미교포 펄 신(1988년) 뿐이었다. 송민영은 경기 초반 4홀차까지 뒤졌지만 캐디를 맡은 아버지 송무석(홍익대 교수)씨의 격려에 힘입어 반격을 시작, 18홀이 끝날 때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부터 존슨은 퍼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송민영은 여유있게 경기를 펼친 끝에 역전승을 거뒀다. 1998년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 골프채를 잡은 송민영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승없이 보냈다.

하지만 올해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뒤 US여자오픈에서도 공동 13위에 오르는 등 기량이 날로 향상됐고 US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까지 제패하면서 미국 아마추어 골프 1인자로 등장했다.

송민영은 "대학 대회 때 준우승만 여러차례 하는 바람에 속이 많이 상했는데 지금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마음을 다잡고 쇼트게임과 퍼트 연습을 많이 한 것이 효과



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 1학년으로 공부와 골프를 병행하고 있는 송민영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프로 전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의 추신수가 10일 시카고 셀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망이쇼에서 7회 스코트 라인브리크를 상대로 2루타를 때려내고 있다.

## '황제' 우즈 PGA 통산 70번째 축배

WGC 역전우승... 시즌 5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땃밭'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서 일곱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70승 고지에 올랐다.

우즈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파70.7천4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합계 12언더파 268타를 적어내 16번홀(파5)에서 트리플보기로 무너진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8언더파 272타)에게 역전승을 거뒀다.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시즌 5승과 함께 삼급 140만 달러를 챙긴 우즈는 통산 승수에서도 70승을 올려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73승에 3승차로 따라 붙었다. 역대 PGA 투어 최다승은 샘 니르드(미국)의 82승.

지난 주 뷰익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우승한 우즈는 올 시즌 남은 대회에서 니클라우스의 승수를 따라잡을 가능성을 높였다. 만33세에 불과한 우즈는 40세에 70승을 달성한 니클라우스를 이미 넘어선 셈이다.

지난 달 버티시오픈에서 첫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던 우즈는 13일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에 출전, 올 시즌 해내지 못했던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3라운드 선두 해링턴에 3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맞은 우즈는 2번홀(파5)에서 7m짜리 이글 퍼트를 홀에 집어넣으며 기선을 제압했고 4번(파4), 5번(파3), 9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여 2타차로 앞서 나갔다.

우즈와 최종 라운드에서 맞붙어 주눅들지 않는 선수로 꼽히는 해링턴은 파행진을 계속하다 11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홀 옆 2m에 붙여 버디로 연결시켰고 우즈가 13번홀과

14번홀(이상 파4)에서 1타씩을 잃고 흔들리는 사이 다시 1타차 선두로 올라섰다.

한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마지막날 4타를 줄여 공동 19위(1언더파 279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앤서니 강(37)과 함께 공동 36위(2오버파 282타)로 대회를 마쳤다.

4언더파 66타를 친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공동 45위(5오버파 285타), 뉴질랜드 교포 이진경(29·캘러웨이)은 공동 51위(6오버파 286타)에 그쳤다.

## 나상욱 시즌 8번째 톱 10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여덟 번째 톱10에 들었다.

나상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몬트루 골프장(파72.7천47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US뱅크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에 오른 뒤 RBC 캐나다오픈 53위, 뷰익 오픈 46위로 주춧거린 나상욱은 다시 톱10에 진입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날 선두에 9타 뒤진 공동 9위였던 나상욱은 이날 5번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했으나 10~12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집중력을 보이는 등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버디 5개를 잡아내며 4타를 줄였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등 톱 랭커들이 같은 기간 열린 특급대회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 참가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 대회 우승컵은 존 몰린스(미국)에게 돌아갔다.

## 추신수 打... 打... 打... 불방망이쇼

잠시 주춧했던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다시 불을 뿜었다.

추신수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US 셀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망이쇼에서 4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안타 3개를 몰아쳤다.

지난 1일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 3안타를 때린 이후 9일 만에 또 3안타를 날렸다. 5타수 3안타를 친 추신수는 타율이 0.294에서 0.297로 올라갔다.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화이트삭스 선발투수 호세 콘트라라스의 높은 포심패스트 불을 밀어쳐 좌전안타를 만들어냈다.

4회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2사 1, 2루 찬스에서 바뀐 투수 토니 페냐의 빠른 슬라이더를 당겨쳤다가 2루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

7회 1사1루에서는 바뀐 투수 스킷 라인브리크의 시속 132km짜리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익수 앞 안타를 뽑아냈다. 시즌 26번째 2루타,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마무리 투수 욱타비오 도델의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중견수 앞으로 흐르는 깊숙한 3루타를 쳤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15안타를 터뜨리며 8-4로 승리를 거뒀다.

